

광주에 나타난 '바흐' ... 시민에게 질문을 던지다

광주 도심에 바흐(1685~1750)가 출몰했다.
긴 가발과 바로크 시대 의상을 갖춰 입은 바흐는 광주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치과와 미장원도 찾았다. 주차금지 표지판 옆에서 지나가는 차를 보며 지휘하듯 모션을 취하고, 광주전변과 양림동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5·18 묘역을 찾아 거대한 기념탑을 한창 동안 올라다 보기도 했다.

바흐 복장을 하고 최근 2주간 광주 곳곳을 다닌 이는 독일 출신 무대미술·의상 전문가 유딧 필립 (Judith Philip·여)씨였다. 그녀는 독일 할레 극장에서 고증을 받아 바흐가 살았던 시대의 의상과 사람 머리로 만든 가발을 직접 공수해 왔다.

바흐가 광주 곳곳을 찾은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됐다. 그녀는 아시아예술극장 PD로 활동중인 공연 기획자 이수은(여·43)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백 투 더 바흐(Back to the Bach)'의 협력 아티스트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일카 뤼케(Ilka Rumke)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

바흐의 광주 등장은 이씨의 '발상의 전환'에서 탄생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수학한 이씨는 베를린에 15년간 머물며 무대 미술, 퍼포먼스, 의상, 공연 기획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2014~2015 독일연방문화재단 지원 '더블패스(Dubblepass)'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바흐의 고향인 라이프치히 관련 기획을 진행하게 됐다.

이씨는 이방인인 자신이 라이프치히를 한정된 시간에 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시각을 협소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



왼쪽부터 일카 뤼케·이수은·유딧 필립.

다. 오히려 완전히 '낯선' 시작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었다.

"라이프치히에서 바흐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클래식한 소재였다. 바흐는 그곳에서 '박물관의 유물'같은 존재였다. 시선을 바꿔봤다. 바흐가 한국에 산다는,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황당하다고 느낄 내용이었다. 바흐의 가상 다큐를 만들어 21세기 한국 땅에 떨어진 바흐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 라이프치히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바흐를 좋아했던 시인 백석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바흐를 주제로 광주 사람들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강민형(30), 문화콘텐츠 기획자 유병철(42), 북방 공방 김형숙(52),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52)씨

이수은 기획 '백 투 더 바흐'

독 무대미술 전문가 유딧 필립

바로크 의상 입고 가발 쓰고

5월 묘역·광주전·양림동 출몰

"낯선 곳서 새로운 시선 찾는 과정"

내년 라이프치히에서 작품 공개



이수은씨가 기획한 'Back to the Bach' 프로젝트 중 바흐 분장을 한 유딧 필립씨가 광주 음식점에 앉아 있다. <이수은씨 제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인들이 참여했다. 당신에게 바흐는 어떤 사람인지,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물었다.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 쪽으로 인지하고,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존재 등 다양한 답이 돌아왔다. 인터뷰어들은 비밀스런 코드처럼 '똑같은' 동작을 취하도록 요청받았다. 같은 내용의 인터뷰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도 진행되며 그들 역시 동작을 공유한다.

"사람은 각자가 가진 삶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이미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나 자신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타인 혹은 낯선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에 바흐가 나타난 건, 완전히 새로운 낯선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작품은 내년 3월 라이프치히에서 선보인다. 아이패드 앱을 사용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전시가 결합된 복합공연이다. 당초 광주 공연 계획은 없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주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중이다.

"이번 작품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동

시대적 관심으로 끄집어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가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근무중이다. 광주에 머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광주 역사 과거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다."

다음에는 흑시, 광주의 '누군가'가 라이프치히에 출몰해 그 곳 시민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지도 모르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홍희란 작 '그림자'

행복한 동물원 ... 환영이네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환영 동물원'전 22일까지

물병 속에서 놓고 있는 코끼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달콤한 낮잠을 자는 돼지, 한없이 선한 눈망울로 관람객을 바라보는 기린, 전시장을 날아다니는 새들, 동물원이 시장 속으로 들어왔다.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는 오는 22일까지 고마음, 국경희, 양재영, 이다예, 정다운, 홍희란씨 등 6명의 작가를 초대해 '환영동물원'전을 연다.

다양한 동물과 곤충 작품을 통해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전시다.

작가들은 철창 안에 갇혀 사육되면서 안타까움을 지어내는 동물들, 유기된 애

원동물, 들판에서 살아가는 곤충에 주목했다.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주제 '환영'은 동물원에 온 관람객을 반갑게 맞아준다는 '환영'(WEL-COME)의 의미와 함께 동물들이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는 '환영'(phantom)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내면 그림일기 ... 솔직하네

무등갤러리, 7~13일 서현호전

무등갤러리는 7~13일 서양화가 서현호씨를 초대해 '유기농 백수의 그림일기'전을 연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서씨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에 450회의 그림일기를 연재하는 등 '스마트폰 그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스마트폰 작품을 디지털 판화로 제작해 전시한다.

450회의 그림일기는 개인의 기록이자,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삶의 기록이기도 하다.

서씨가 생활하면서 느낀 다양한 감상들을 드로잉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들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이 묻어났다.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인간 내면에 잠재한 무의식적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이번 전시 작품의 특징이다.

세월호를 주제로 그린 '차고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가는 사람'과 같이 작가는 때로는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기도 하고, 때로는 해학과 풍자로 우리 일상을 잔잔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문의 062-230-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 안의 나'

희 갤러리
HEE GALLERY

전통문화체험

한지 뜨기 체험, 한지공예 만들기 체험, 칠보 액세서리 만들기, 도자기 페인팅, 전통음식 만들기, 쿠키 만들기 체험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간이 마련된 희갤러리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세요"

공예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

한지등 판매(주문 제작 가능), 한지 박스 제작 판매, 한지공예 문화상품 제작 판매(단체선물 가능)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710-30번지
Mobile : 010-5529-6739 Tel : 061)473-2491
Fax : 061)473-2491 E-mail : bird2491@hanmail.net

이 광고는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제작된 광고입니다.